

### 작년 항공이용객 사상 최고

지난 96년 한해동안 전세계 민간 여객기를 이용한 승객수는 전년보다 6% 증가한 13억8천만명에 이르러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가 지난 20일 발표했다.

ICAO는 이날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96년도중 민간 여객기의 △국제 승객수는 4억9백만명으로 전년보다 9.1% 증가했고 △국내 승객수는 9억7천1백만명으로 95년보다 4.7%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. 또한 이 보고서는 96년중 전세계 7백20개 항공기 및 70개 화물 항공사의 영업수익은 전년도의 1백35억 달러 보다 줄어든 1백20억달러였으며 이같은 수입감소는 항공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항공요금 인하경쟁과 항공 유류 인상 등 때문이었다고 말했다.

승객 취급을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공항인 시카고오헤어 국제공항 등 세계 25개 공항(미국이 16개 차지)을 이용한 승객수가 9억3천3백만명이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.

보고서는 96년중 승객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바쁜공항은 △시카고 오헤어(6천9백만명), 아틀란타(6천3백만명), 델러스·포트워스(5천8백만명), 로스앤젤

레스(5천7백90만명), 런던 히드로(5천6백만명), 도쿄 하네다(4천6백60만명), 샌프란시스코(3천9백20만명), 프랑크푸르트(3천8백70만명), 서울(3천4백70만명) 순이었다.

### 에어프랑스·아에로플로트 전세계적 항공망구축 제휴합의

에어 프랑스와 러시아의 아에로플로트는 전세계적인 항공망의 구축을 위해 역사적인 제휴를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5일 발표했다. 두 항공사는 여객과 화물수송의 전세계적인 새로운 합작 서비스를 목표로 한 이 협정이 이날 모스크바에서 체결됐다고 밝혔다.

이 협정에 따라 에어 프랑스는 러시아내에서의 항공노선을 구 소련소속 공화국인 CIS(독립국가연합)국가들까지 확장운항 할 수 있으며 아에르플로트는 프랑스는 물론 전통적으로 에어 프랑스의 취항이 강한 아프리카와 중남미로까지 노선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. 이에 따라 아에르플로트와 에어프랑스 여객기 탑승객들은 단 하나의 항공표로 상대 항공사 여객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히고 예컨대 파리에서 모스크바를 경유해 러시아 서부 우랄 산맥 중부도시 에카테

린부르크를 여행하려 할 경우 모스크바까지는 에어프랑스 여객기를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에카테린부르크까지는 아에르플로트 여객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.

에어 프랑스는 현재 2백5대의 항공기를 보유, 세계 98개국 1백97개 공항에 취항하고 있으며 아에르플로트는 1백15대의 항공기로 93개국 1백66개 공항에 취항하고 있다.

### 아시아나항공, A330 6대 주문

아시아나 항공이 늘어가는 국제노선을 위해 지난 8월 말 에어버스의 A330 기종 6대를 주문했다.

이번 주문에는 A330-200 3대와 -300 3대로 오는 1999년 3/4분기와 2001년중반사이에 인도될 예정이다. 이와함께 아시아나항공은 5대의 A330-200과 7대의 A330-300을 비롯하여 기타기종 10대의 추가주문을 위해 현재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. 엔진은 프랫앤휘트니사의 PW4000 시리즈이다.

아시아나항공은 아직 내부디자인을 결정하지는 않았으나 A330-200은 3개클래스 253명, A330-300은 2개 클래스에 335명

을 수용할 수 있도록 에어버스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. A330-200은 호주 및 유럽노선에 투입될 전망이다.

한편, A330은 A321과 크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조종석의 디자인이 같아 A321의 조종사가 추가 교육없이도 A330을 조종할 수 있어 비용절감차원에서도 우수하다고 에어버스측은 설명하고 있다.

### 대한항공, 노후기 교체 A300B4기종 등

대한항공은 에어버스사의 노후화된 A300B4 기종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고 대신 A300-600R로 대체하는 등, 이중통로형 및 단일통로형기의 노후기를 신형으로 바꿀 계획이다.

이번에 교체할 A300B4은 총 8

대로 호주의 안셋(Ansett Worldwide)항공이 2대를 이미 인수했으며 9월말 나머지 1대를 도입할 예정이다. 또 일본여객서비스(Japan Fleet Services)가 3대를 구입했다. 나머지 2중 1대는 해체작업을 벌이고 있고 1대는 일반공원에 기증될 예정이다.

대한항공은 한편 동 기종의 대체기종으로 A300-600R 6대를 구매 혹은 임대할 예정인데 안셋항공과 일본여객서비스사로부터 각각 2대를 임대하고 나머지 2대는 현재 물색중이다. 대한항공이 임대할 A300-600R 4대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가루다 항공이 운항중인데 가루다 항공은 A300-600R 대신 A330-300을 운항하게 된다.

한편, 대한항공은 이밖에 포커(Fokker)사의 F100 12대, 보잉사의 MD-82/83 4대를 신형기로

교체할 예정으로 있으며 보잉 737-800이나 A320/321중 선택하여 교체할 계획이다.

### 중국 항공사, 공동운영체제 구축 6개 국내전용항공사 서비스 공동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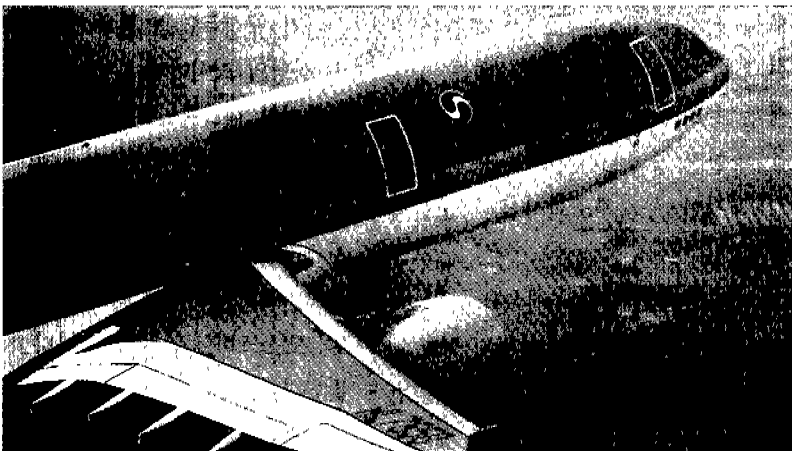
중국의 6개 국내선 전용 항공사들은 중국소유의 큰 항공사와 경쟁에서 큰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 협력체제를 구축했다.

뉴스타 연합(New Star Air Alliance)으로 불리우는 동 체제는 하이난 항공, 산둥 항공 등 6개 항공사로 지난 9월 8일 협상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1998년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.

협력범위는 통합 서비스, 지상 운영, 공항서비스의 공유, 항공권 판매 및 항공기 정비 등이다.

뉴스타연합은 총 57개의 여객기를 운항하게 되는데 이중 15대가 하이난 항공 소유이다.

한편, 중국의 민간항공국(Civil Aviation Administration)은 중국 내 35개 항공사중 단지 6개 항공사만이 이윤을 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, 계속해서 이들 항공사의 국유화를 중용하고 있다.



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신형기 경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.